

평가 상황에서 완벽주의성향이 얼굴 표정 해석과 기억에 미치는 영향

김 상 희

현 명 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성공 및 실패 조건에서 완벽주의 성향이 얼굴 표정 해석과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비완벽주의 집단(30명), 자가지향적 완벽주의 집단(30명),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집단(30명)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의 피험자를 무선으로 성공 및 실패 경험을 하도록 조작하였다. 그 다음, 피드백을 제공 받은 후, 집단에 따라 모호한 얼굴 표정 자극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보고, 긍정적으로 해석한 얼굴 표정과 부정적으로 해석한 얼굴 표정에 대한 재인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자가지향적 완벽주의 집단에서 성공 피드백을 받았을 때는 해석 편향과 기억 편향이 발견되지 않았고, 실패 피드백을 받았을 때는 부적 해석 편향이 발견되었지만, 기억 편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집단에서는 성공 피드백을 받았을 때와 실패 피드백을 받았을 때 모두에서 부적 해석 편향과 부적 기억 편향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평가 상황에서 자가지향적 완벽주의자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자의 인지 편향이 유발되는 패턴이 다르며, 이런 차이가 완벽주의자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완벽주의, 얼굴표정, 해석편향, 기억편향

[†] 교신저자: 현명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156-756)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Tel: 02-820-5125, E-mail: hyunmy@cau.ac.kr

완벽주의자는 다른 사람보다 수행을 잘 하 고도 자신의 수행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완벽주의 성향은 성취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실제로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학업이나 직무 등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가 다양한 집단에서 얻어지고 있다(Rice & Slaney, 2002; Grzegorek, Slaney, Franze, & Rice, 2004). 그렇지만 완벽주의자는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업 자체가 늘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은 막연한 느낌을 갖는다. 또한 완벽주의자는 수행에서 실수를 찾고자 하고, 자신의 신념과 행위를 확신하지 못하여 잘한 일에 대해서도 기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늘 자기 비난 상태에 빠지기 쉽다(Burns, 1980). 따라서 완벽주의 특성이 가져다줄 긍정적인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 정서, 행동, 자기 지각의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면, 실패감, 죄의식, 결정하지 못함, 미루기, 수치심, 불안, 자존감 저하(Solomon & Rothblum, 1984; Sorotzkin, 1985)를 경험하고, 보다 심각하게는 알코올 중독, 섭식 장애, 우울증, 성격 장애 등(Pacht, 1984; Frost, Martin, Lahart, & Rosenblate, 1990; Hewitt & Flett, 1991a)의 정신 병리로 발전되기도 한다.

과거에는 완벽주의를 부정적인 단일 차원으로 보았으나, 완벽주의에 대한 다양한 척도가 개발되면서 다차원적인 구성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Hewitt와 Flett(1991a)는 완벽주의를 ‘자신이나 타인에게 높은 기준을 부여하고 그 기준에 도달하도록 요구하는 행동 특성’으로 정의하고, 완벽주의적 행동의 대상이 누구인가 또는 완벽주의적 행동이 누구에게 귀인되는가에 따라 세 가지 하위 차원으로 분류

했다. 그 하위 차원은 자기지향적 완벽주의(self-oriented perfectionism), 타인지향적 완벽주의(other-oriented perfectionism),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social-prescribed perfectionism)이다.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는 자신의 만족과 성숙을 추구하기 위해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수행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성향이다.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는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에게 비현실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할 것을 기대하며 타인의 수행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성향이다.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는 완벽주의 성향이 자신에게 귀인 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에 대한 평가 및 성취 측면과의 관련성이 적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이 자신에게 비현실적인 과도한 기준을 부과하고 완벽하도록 압력을 준다고 믿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결국 그들에게 거부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끼는 성향이다.

완벽주의자가 자신의 수행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단지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높기 때문만은 아니다. 완벽주의자는 스스로의 기대에 맞추지 못한 것을 비난하고, 설사 비현실적인 기준에 도달하더라도 기대한 것을 단지 했을 뿐이라고 치부하여 성취의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Burns, 1980; Wesinger & Lobsenz, 1981). 완벽주의자가 자신의 성취와 그 성취에 대한 평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취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완벽주의자의 인지가 왜곡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완벽주의자의 왜곡된 인지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이들은 피할 수 없는 과제에 직면하면 그 과제의 중요성을 실제 이상으로 과대하게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과제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고, 동시에 과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지고 부담만 가진 채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실패를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성취 욕구보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려고 애쓰게 된다(Frost & Marten, 1990). 완벽주의자는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왜 도달하지 못했는지를 살펴보는 자기수용적인 태도를 갖기보다 자신에게 많은 의무와 당위를 부과한다(홍혜영, 1995). 또한 완벽주의자는 ‘실패 아니면 성공’식의 이분법적 사고를 하거나(Egan, Piek, Dyck, & Rees, 2007), 자신에게 발생한 부정적 사건이 계속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과잉 일반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Burns, 1980).

이런 부적응적인 인지적 특징은 타인이 자신에게 비현실적인 과도한 기준을 부과하며 그 기준을 달성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자의 주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자는 내적 동기가 부족하고,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믿으며, 외부에서 부과된 비현실적인 기준과 실제 자신의 불일치를 심각하게 되면서 좌절감과 무기력감을 느끼게 된다(Hewitt & Flett, 1991b).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자는 자신의 만족과 성숙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자신이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긍정적 성취동기를 갖고 있으며(이미화, 2001; Burns & Fedewa, 2005),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대한 통제감을 갖고 있다(Hewitt & Flett, 1991b). 또한 이들은 자신의 한계와 강점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수행범위를 설정하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크다. 성공을 하면 성공의 원인을 자신의 능력에 귀인하여 어려운 일을 잘 해낸 것에 대해 기뻐하고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낀다(Flett, Hewitt, Blankstein, & Mosher, 1991; Stoeber & Otto, 2006).

이렇듯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에 비해 많은 상황에서 적응적이지만 실패와 같은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자도 부정적 피드백을 받았을 때 이상적 자아와 실제적 자아의 큰 불일치를 경험하면서(Mor, Day, Flett, & Hewitt, 1995)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자와 마찬가지로 인지 왜곡, 자기-비난, 부정적 감정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Hewitt & Flett, 1991b). 또한 병리적으로 심각한 우울증 환자의 경우에도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ewitt, Flett, & Ediger, 1996). 이처럼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적응적인 요소와 부적응적인 요소를 모두 지닌 차원으로 고려되고,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일관되게 부정적 속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Chang & Rand, 2000).

앞서 언급했던 지나치게 높은 수행 기준, 그에 따르는 실수에 대한 두려움, 수행에 대한 의심 등 완벽주의자의 왜곡된 인지적 특성은 평가 상황에서 불안을 유발한다(Alden, Bieling, & Wallace, 1994). 완벽주의자는 평가위험이 높은 상황일수록 비완벽주의자보다 부정적 정서와 불안을 크게 경험한다(현진원, 1992). 한 연구에서는 시험 상황에서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시험전의 상태 불안이 더 높았고, 완벽주의 집단 내에서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집단이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집단보다 불안 수준이 더 높았다(최원혜, 1999). 이는 완벽주의자가 인정받고자하는 욕구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평가 상황에서 불안을 유발하며,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타인의 평가에 특히 민감하기 때문에(Hewitt & Flett, 1991b, 1993) 불안이 더욱 증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자는 평소에는 적응적이지만, 실패와 같은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에는 부적응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 상황에서 어떤 정서적 차이를 경험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완벽주의자를 대상으로 실패와 성공 피드백을 제시하여 정서적 차이를 경험적으로 연구한 경우는 드문데, 최근 국내 연구에서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상관이 높은 긍정적 완벽주의 집단은 성공을 했을 때에는 비완벽주의 집단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실패를 하면 크게 낙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상관이 높은 부정적 완벽주의 집단은 성공, 실패 상관없이 즐거움 정서를 덜 느끼고, 실패를 하면 정서적 동요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한민지, 2010).¹⁾

불안 및 부정적 정서는 정보처리 단계에 영

향을 끼친다. 이에, 그 정서와 일치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증가시켜 모호한 자극과 정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편향을 유발하고(Bower, 1981, Gotlib & Joormann, 2004, Yoon & Zinbarg, 2007), 기억을 인출하는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정보를 더 잘 기억하는 등의 인지 편향이 관찰된다(Warkins, Martin, & Sten, 2000, McNally, Lasko, Macklin, & Pitman, 1995). 이런 인지 편향은 같은 정보를 접하게 되더라도 부정적인 사고 및 정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Clark & Wells, 1995),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불안, 우울을 유발하는 등 여러 부적응의 발생 및 유지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실제로 불안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얼굴 표정 사진을 가상의 청중의 표정이라고 가정하고 자신의 발표에 대한 태도를 평정하도록 한 결과 사회불안이 높은 대학생집단이 얼굴 표정을 보다 부정적으로 해석하였다(김진관, 1998). 그리고 사회불안이 높은 대학생은 사회불안이 낮은 대학생보다 사회적 상호작용 후에 거짓 피드백으로 제시된 부정적인 단어를 더 잘 재인하였다(O'Banion & Arkowitz, 1977).

완벽주의는 차원에 따라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의 수준 및 양상이 다르며, 성공과 실패 경험에 따라서도 양상이 달라진다는 점을 미뤄볼 때, 성공, 실패 상황에서 완벽주의 집단에 따라 해석과 기억 편향의 양상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집단에 성공과 실패 피드백을 제시한 후, 현실의 직접적인 정서 자극이 되고,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정보인 얼굴 표정 자극(Meheravian, 1971)을 사용하여 해석과 기억 편향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Frost 등(1990)은 완벽주의 하위차원을 개인적 기준, 조직화,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 부모의 기대 및 부모의 비판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Hewitt와 Flett(1991a)의 완벽주의 차원을 포함하여 요인 분석하면 두 가지 요인이 추출된다. Frost 등(1990)의 개인적 기준, 조직화, Hewitt와 Flett(1991a)의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는 긍정적 성취추구 요인에 해당되고, Frost 등(1990)의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 부모의 기대 및 부모의 비판, Hewitt와 Flett(1991a)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부적응적 평가염려 요인에 해당된다(Frost, Heimberg, Holt, Mattia, & Neubauer, 1993). 한민지(2010)는 Frost 등(1990)의 척도만 사용하여, 개인적 기준, 조직화를 긍정적 완벽주의 집단으로, 실수에 대한 염려와 수행에 대한 의심은 부정적 완벽주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보건대,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자는 성공 상황에서는 얼굴 표정에 대한 부정적 해석 편향과 기억 편향 나타나지 않고 실패 상황에서만 얼굴 표정 해석 편향과 기억 편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자의 경우에는 실패 상황은 물론 성공 상황에서조차도 자신의 실수와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실패감, 불안 등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며, 자신의 수행과 수행에 대한 피드백을 부정적으로 왜곡하여 해석하기 때문에 성공 상황과 실패 상황 모두에서 얼굴 표정에 대한 부정적 해석 편향과 기억 편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모호한 얼굴 표정 해석에 있어서 비완벽주의 집단,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집단,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집단의 해석 편향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성공 조건에서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얼굴 표정에 대한 부정 해석 편향이 나타날 것이다.

1-2. 실패 조건에서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집단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집단이 비완벽주의 집단에 비해 얼굴 표정에 대한 부정 해석편향이 나타날 것이다.

가설 2. 비완벽주의 집단,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집단,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집단은 긍정 얼굴 표정과 부정 얼굴 표정에 대한 재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성공 조건에서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긍정 얼굴 표정보다 부정 얼굴 표정을 더 잘 재인할 것이다.

2-2. 실패 조건에서는 자기지향적 완벽

주의 집단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집단이 비완벽주의 집단에 비해 긍정 얼굴 표정보다 부정 얼굴 표정을 더 잘 재인할 것이다.

방 법

연구 대상

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심리학 수업을 듣는 학부생 675명에게 Hewitt와 Flett(1991a)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이 두드러진 자가 다른 완벽주의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서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점수도 함께 고려하여 집단을 구성하였다.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점수가 상위 33.3%(80점)에 해당하면서,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점수가 평균 이하(62점, 60점)에 속하는 사람을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집단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점수가 상위 33.3%(66점)에 해당하면서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점수가 평균 이하(72점, 62점)에 속하는 사람으로 분류하였고, 그 중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점수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점수보다 높은 사람은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완벽주의 집단은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점수가 모두 평균 이하(72점, 62점, 60점)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분류하였다.

이들에게 개별 연락을 하여 실험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비완벽주의 집단의 38명,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집단의 36명, 그리고 사회적으

표 1. 완벽주의 척도 점수의 평균(표준편차)

척도	집단	비완벽주의 집단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집단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집단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52.60(9.27)	85.37(5.10)	61.97(7.74)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51.57(7.52)	55.50(6.84)	55.17(7.75)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46.27(6.70)	55.33(5.33)	71.73(6.80)

로 부과된 완벽주의 집단의 33명을 각 집단의 절반은 성공 조건, 나머지 절반은 실패 조건으로 무선 배정하였다. 이 중에서 성공 실패 조작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과 실험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비완벽주의 집단 30명,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집단 30명,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집단 30명이 성공 조건과 실패 조건 각각에 15명씩 포함되었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전체 참가자 90명 중 남자는 44명, 여자는 46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0.51세(SD=2.2)였다.

측정 도구

완벽주의

한기연(1993)이 번안한 Hewitt와 Flett(1991a)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세 가지 하위영역에 각 15문항씩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Likert 척도로 총 최저 45점에서 최고 315점까지 점수를 지니며,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0, .77, .74이다.

성공-실패를 조작하기 위한 선행 과제: 단어 짜맞추기 검사

Arkin과 Deutchon(1982)이 사용한 단어 짜맞추기 검사에 박순환(1986)이 문항을 첨가하여 쉬운 문항 11개, 중간 수준 문항 11개, 어려운 문항 11개로 총 3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풀이 방법은 제시된 영어 스펠링을 한번 씩 모두 사용하여 단어가 되도록 순서를 바꾸는 것이다. 예) APLY → (PLAY)

얼굴 표정 자극

실험에 사용된 얼굴 표정 사진은 ‘그림 그리기를 위한 얼굴 표정 참고서(Simon, 2008)’에 제시된 사진 중에서 실험자가 모호한 표정이라고 생각되는 얼굴 표정 사진 100장을 선별하였다. 그 후, 20대 남,여 각각 10명씩에게 100장의 얼굴 표정 사진이 긍정적인 표정인지 부정적인 표정인지 평정하라고 하여,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각각 50% 정도인 사진 40장을 선별하였다.

모든 얼굴 표정 자극이 제시될 때 자극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굴 표정 자극을 제시하는 동시에 경보음을 들려줬으며, 사진 제시 순서는 순서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라틴 스퀘어 방식을 이용해서 무선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재인 과제에서 머리 모양 등 얼굴 표정이 아닌 것에 의해 기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얼굴 표정 이외의 다른 부분은 가리고 제시하였다.



그림 1. 사진의 예

방해 과제

본 연구에서는 방해자극으로 이영호와 송종용이 번안한 Beck의 우울 질문지(Beck Depression Inventory: Beck, Ward, Medelson, Mock, & Erbaugh, 1961)와 김정택(1978)이 번안한 상태-특성 불안 질문지(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pielberger, Gorsuch, & Lushen, 1970) 중에서 상태 불안을 측정하는 20문항을 사용하였다.

실험 절차

완벽주의 질문지를 통해 비완벽주의 집단,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집단,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집단을 선발한 후, 각 집단의 절반씩을 성공 조건과 실패 조건에 무선으로 배정하였다. 이들은 실험에 개인적으로 참여하였고, 단어 짜맞추기 검사를 문제풀이능력과 추리력과 상관이 높은 검사라고 소개를 하고, 8분간 문제를 풀게 하였다. 성공-실패를 더 확실하게 조작하기 위해 2회 피드백을 제시하는데 1차 피드백은 채점을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성공처치 : 굉장히 어려운 검사였는데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많은 문제를 풀었군요

실패처치 : 상당히 어려웠나 보네요 다른 학생들에 비해 많이 못 풀었네요

채점을 한 후에는 수행 결과에 대한 2차 성공-실패 피드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성공처치 : 아주 잘 풀었습니다. 당신의 점수는 상위권에 해당됩니다

실패처치 : 너무 못 풀었습니다. 당신의 점수는 하위권에 해당됩니다

피드백 제시 후, 모니터를 통해 20장의 얼굴 표정 자극 사진을 한 장씩 5초 동안 제시하면서 ‘모니터에 제시된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하면서 5초간 계속 응시하게 하였다. 모니터에서 사진이 사라지면 4초간의 판단시간 동안 ‘매우 싫어한다(1)’에서 ‘매우 좋아한다(6)’까지 6점 척도에 평정하게 하여, 모호한 얼굴 표정 자극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알아보는 얼굴 표정 해석 과제를 실시하였다.

20장의 사진에 대한 평정이 모두 끝나면, 방해 과제로 Beck의 우울 질문지와 상태 불안 척도를 5분 동안 완성하게 하였다. 5분이 지난 후, 얼굴 표정 해석 과제에서 긍정적이라고 해석한 얼굴 표정 자극과 부정적이라고 해석한 얼굴 표정 자극에 대한 재인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과제를 실시하였다. 얼굴 표정 해석 과제에서 제시했던 20장의 모호한 얼굴 표정 자극에 새로운 모호한 얼굴 표정 자극 20장을 더 추가하여 총 40장의 얼굴 표정 자극을 한 번에 4장씩 8초 동안 제시하고, 화면과 다음 화면 간에 4초의 공백시간을 두었다. 피험자에게는 4장의 사진 중에는 조금 전에 제시되었던 사진이 하나도 없는 것부터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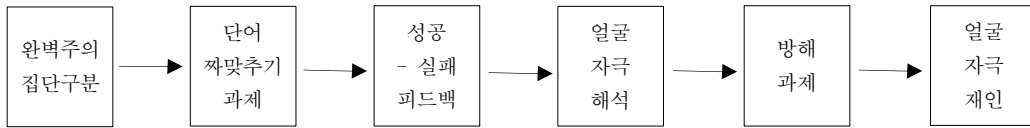


그림 2. 실험 절차

장 모두 답인 것까지 다양하게 섞여 있으니 4장의 사진 중에 조금 전에 보았던 얼굴 표정이라고 생각되는 사진 모두에 체크하라고 지시하였다.

결 과

모호한 얼굴 표정 자극에 대한 해석 결과

비완벽주의 집단,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집단,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집단에 따른 성공 및 실패 조건의 모호한 얼굴 표정 자극에 대한 해석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점수가 높을수록 모호한 얼굴 표정을 긍정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수행에 대한 성공 및 실패 피드백을 제공 받은 후, 비완벽주의 집단,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집단,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집단 간의 모호한 얼굴 표정 자극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있는지 이원변량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집단 간의 주효과, $F(2, 84) = 10.135, p < .001$, 와 성공, 실패 조건에 대한 주효과,

$F(1, 84) = 16.695, p < .001$, 가 유의했다. 즉,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비완벽주의 집단(72.50 ± 7.14),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집단(69.40 ± 7.01),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집단(65.07 ± 6.84) 순으로 얼굴 표정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완벽주의 집단에 상관없이 성공 조건일 때(71.76 ± 7.92)가 실패 조건일 때(66.22 ± 6.11)보다 얼굴 표정을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성공 조건과 실패 조건 각각에 대한 일원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공 조건에서는 비완벽주의 집단,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집단,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2, 42) = 4.482, p < .05, \eta^2 = .176$. Bonferroni 사후 검증 결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집단은 비완벽주의 집단보다 부적 해석 편향이 유의하게 높았고($p < .05$),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집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높은 경향성이 발견되었다($p = .058$).

실패 조건에서는 비완벽주의 집단,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집단,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2, 42)$

표 2. 모호한 얼굴 표정 자극에 대한 해석 점수의 평균(표준편차)

점수	집단	비완벽주의 집단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집단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집단
성공 조건		74.47(8.31)	73.67(6.26)	67.13(7.37)
실패 조건		70.53(5.32)	65.13(4.84)	63.00(5.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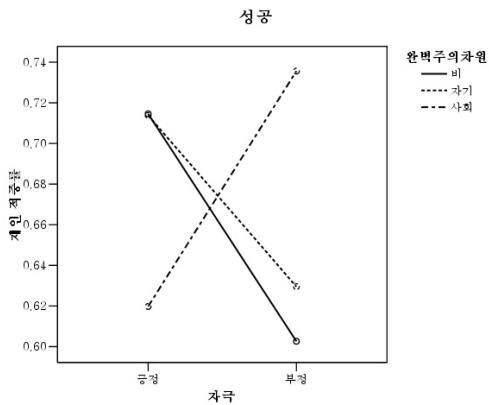


그림 3. 성공 조건에서 집단과 자극에 따른 재인 적중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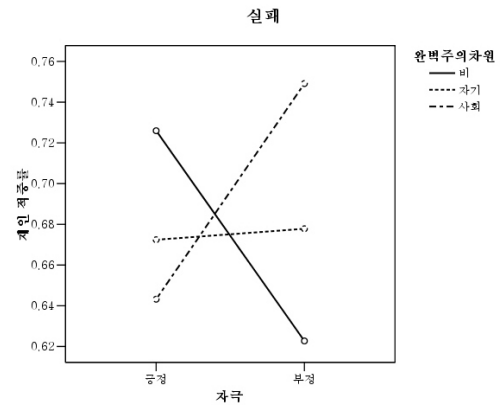


그림 4. 실패 조건에서 집단과 자극에 따른 재인 적중률

= 7.972, $p < .001$, $\eta^2 = .275$. Bonferroni 사후 검증 결과,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집단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집단은 비완벽주의 집단에 비해 부적 해석 편향이 유의하게 높았다(각 유의도 $p < .05$, $p = .001$).

얼굴 표정 자극에 대한 재인 적중률

얼굴 표정 해석 과제에서 모호한 얼굴 표정을 1점(매우 싫어한다)~3점(조금 싫어한다)으로 평정한 얼굴 표정 자극은 부정 얼굴 표정 자극으로 분류하고, 4점(조금 좋아한다)~6점

(매우 좋아한다)으로 평정한 얼굴 표정 자극은 긍정 얼굴 표정 자극으로 분류한 다음, 긍정 얼굴 표정 자극과 부정 얼굴 표정 자극에 대한 재인 적중률을 분석하였다.

완벽주의 집단(3) × 성공, 실패 조건(2) × 긍정/부정 자극(집단 내; 2)의 반복측정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긍정/부정 자극과 완벽주의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였다, $F(2, 84) = 9.459$, $p < .001$, $\eta^2 = .184$. 이에 따라 완벽주의 집단에 대한 단순 주효과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성공조건에서 비완벽주의 집단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집단과 비교했을

표 3. 긍정 자극과 부정 자극에 대한 재인 적중률의 평균(표준편차)

적중률 \ 집단	비완벽주의 집단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집단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집단
성공 조건			
긍정 자극	.71(.14)	.71(.14)	.62(.13)
부정 자극	.60(.20)	.63(.15)	.74(.14)
실패 조건			
긍정 자극	.73(.18)	.67(.18)	.64(.16)
부정 자극	.62(.13)	.68(.18)	.75(.17)

때, 비완벽주의 집단은 긍정 자극에 대한 재인 적중률(.71)이 부정 자극에 대한 재인 적중률(.60)보다 높은 반면, $F(1, 14) = 4.985, p < .05, \eta^2 = .263$,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긍정 자극에 대한 재인 적중률(.62)이 부정 자극에 대한 재인 적중률(.74)보다 낮아서, $F(1, 14) = 4.394, p = .055, \eta^2 = .239$, 두 집단이 상반된 경향을 보인다. 마찬가지로,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 집단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집단의 비교에서도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 집단은 긍정 자극에 대한 재인 적중률(.71)이 부정 자극에 대한 재인 적중률(.63)보다 높은 반면, $F(1, 14) = 3.889, p = .069, \eta^2 = .217$,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긍정 자극에 대한 재인 적중률(.62)이 부정 자극에 대한 재인 적중률(.74)보다 낮아서, $F(1, 14) = 4.394, p = .055, \eta^2 = .239$, 두 집단 간의 상반된 경향을 알 수 있다.

비완벽주의 집단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집단은 성공조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실패 조건에서도 상반된 경향성을 보였다. 즉, 비완벽주의 집단에서는 긍정 자극에 대한 재인 적중률(.73)이 부정 자극에 대한 재인 적중률(.62)보다 높은 반면, $F(1, 14) = 6.463, p < .05, \eta^2 = .316$,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긍정 자극에 대한 재인 적중률(.64)이 부정 자극에 대한 재인 적중률(.75)보다 낮았다, $F(1, 14) = 3.345, p = .089, \eta^2 = .193$.²⁾

2) 재인 적중률에 대한 결과가 반응편파(bias)로 인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민감도(sensitivity; d')와 결정기준(decision criteria; β)를 토대로 신호 탐지 분석을 수행한 결과, 반응편파로 인한 것이 아니었음을 지지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수행에 대한 피드백이 제시된 이후에 평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인 얼굴 표정을 제시하고 그 얼굴 표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기억하는지 알아봄으로써 완벽주의자의 인지 편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완벽주의는 차원에 따라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 양상이 달라지며 성공과 실패 경험에 따라서도 반응 양상이 달라진다. 따라서 연구대상자를 비완벽주의 집단,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 집단,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집단으로 구분하고, 이들이 성공 및 실패 경험에 따라 모호한 얼굴 표정 자극을 어떻게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한 얼굴 표정 자극과 부정적으로 해석한 얼굴 표정 자극에 대한 재인 적중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완벽주의 집단,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 집단,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집단은 성공 조건과 실패 조건에서 모호한 얼굴 표정을 다르게 해석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연구 결과, 성공 조건에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집단이 비완벽주의 집단과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 집단에 비해 모호한 얼굴 표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가설 1-1은 지지되었다.

실패 조건에서는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 집단이 비완벽주의 집단과 비교했을 때 모호한 얼굴 표정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성이 발견되었고,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집단도 비완벽주의 집단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해석 편향이 존재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가설 1-2도 지지되었다.

둘째, 비완벽주의 집단,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 집단,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집단은

긍정 얼굴 표정과 부정 얼굴 표정에 대한 재인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공 조건에서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집단이 다른 두 집단보다 긍정 얼굴 표정에 대한 재인 적중률을 낮았지만, 부정 얼굴 표정에 대한 재인 적중률은 높았기 때문에 가설 2-1이 지지되었다.

실패 조건에서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집단과 비완벽주의 집단을 비교했을 때,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집단은 긍정 얼굴 표정에 대한 재인 적중률보다 부정 표정에 대한 재인 적중률이 높았고, 비완벽주의 집단은 긍정 재인 적중률보다 부정 재인 적중률이 낮게 나타나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집단의 부정적 기억 편향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 집단에서는 긍정 재인 적중률과 부정 재인 적중률이 비슷하여 부정적 기억 편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패 조건에서는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 집단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집단이 비완벽주의 집단에 비해 부정적인 얼굴 표정을 더 잘 재인할 것이라고 가정한 가설 2-2는 부분 지지되었다.

본 연구의 전반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자가 성공을 경험했을 때는 긍정 피드백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긍정적인 정보를 더 많이 기억하여 해석 편향과 기억 편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자가 실패를 경험했을 때는 비완벽주의자보다 부정 피드백을 부정적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부적 해석 편향이 발견되었지만, 부적 기억 편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자는 성공과 실패 상황 모두에서 피드백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왜곡해서 해석하는 부적 해석

편향과 부정적인 정보를 더 많이 기억하는 부적 기억 편향이 발견되었다.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자는 성공 상황에서는 적응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실패 상황에서는 인지 왜곡과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부적응적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실패 피드백을 받았을 때만 부적 해석 편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자가 성공했을 때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며 성공을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에 귀인 하는 적응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 (Chang & Rand, 2000; Mann, 2004; Burns & Fedewa, 2005; Stoeber & Otto, 2006). 또한 실패했을 때는 완벽주의 성향이 이상적인 자아의 기준을 높게 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자아와 실제 자아의 큰 불일치를 겪게 되고 따라서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인 정서가 다른 사람보다 크다는 선행연구도 이 결과를 지지한다 (Mor et al., 1995; Hewitt et al., 1996).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자는 성공과 실패 상황 모두에서 인지적 왜곡과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므로 (Frost et al., 1993) 실패 피드백을 받았을 때는 물론 성공 피드백을 받았을 때도 다른 집단보다 피드백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인 정보를 더 잘 기억한 것이다. 이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포함되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자가 자신의 수행을 왜곡해서 지각하고, 수행과 관련된 피드백을 잘못 해석한다는 선행 연구와 합치한다 (Rice et al., 2003). 또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자는 학교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적응을 잘 못하고 우울과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와 높은 상관을 보이는 등 일관되게 부적응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선행 연구와도 합치한다 (Hewitt & Flett, 1991b; Mann, 2004;

Stoeber & Otto, 2006).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집단은 부정 해석 편향과 기억 편향이 모두 발견되었다. 하지만, 자가지향적 완벽주의 집단은 실패 피드백을 받았을 때 부정 해석 편향은 발견되었지만 부정 기억 편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완벽주의 집단에 따라 실제-이상간 불일치를 경험할 때 사용하는 반응양식 차이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사람들은 좌절이나 상실, 실패를 경험하면 자기초점적 주의가 발생하는데(Carver & Scheier, 1981), 자기초점적 주의반응양식은 반추적 반응양식과 반성적 반응양식으로 구분된다. 반추적 반응양식은 우울한 기분, 우울의 원인, 그리고 관련된 부정적 사고에 계속해서 수동적으로 주의를 집중하는 과정이며, 현재 상황을 더욱 부정적으로 생각하도록 촉진시키는 부적응적인 인지 양상이다. 반면, 반성적 반응양식은 부정적 감정에 직면하여 우울의 원인과 우울한 기분을 야기하는 기저의 사고 과정을 건설적이고 능동적으로 검토하는 사고와 행동이며, 실패 경험 후 우울한 기분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김진영, 2000). 선행 연구에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반추적 반응양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홍석인, 2007; Flett, Madorsky, Hewitt, & Heisel, 2002), 자가지향적 완벽주의는 반성적 반응양식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자는 부정적 사건에 대한 사고가 침투적으로 일어나고, 경험했던 부정적 사건에 대해 반추하면서 부정적인 감정과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얼굴 표정 해석 과제가 끝난 후 5분이 지나고 시작된 재인 과제에서도 부정 기억 편향이 발견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자가지향적 완벽주의자의 경우에는 얼굴 표정 해석 과제가 끝나고 5분간의 휴지기간 동안 반성적 반응양식을 사용해서 실패 경험에서 비롯된 부정적 감정과 사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완벽주의 성향인 높은 사람이 성취와 관련된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Hewitt & Flett, 1991b; Hewitt et al., 1996) 자가지향적 완벽주의자도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자와 마찬가지로 실패 피드백을 받은 후 불안과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면서 모호한 얼굴 표정 자극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 편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억 편향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상의 전반적인 내용을 토대로 자가지향적 완벽주의자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자가 높은 기준을 세우는 성향은 동일하나 적응적인 측면과 부적응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한 기제를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자가지향적 완벽주의자는 스스로의 만족과 성숙을 위해 높은 기준을 세우고 스스로 완벽해지려고 노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자보다는 과제에 대한 부담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적은 상태에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Hewitt & Flett, 1991b; Stoeber et al., 2007). 만약에 수행 결과가 좋다면 자가지향적 완벽주의자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왜곡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긍정적인 피드백이 자가지향적 완벽주의자에게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대로 수행 결과가 좋지 않다는 피드백을 받으면 이상적인 자기와 실제 자기의 불일치로 부정적인 정서가 유발되어 피드백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된다. 하지만 자가지향적 완벽주의자는 스스

로 이 상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내적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Burns & Fedewa, 2005; Fedewa, Burns, & Gomez, 2005; Rice, Vergara, & Aldea, 2006) 기억 편향까지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유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이전 경험에서 얻은 문제해결 방법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완벽해지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자는 성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 높은 기준을 갖고 과제를 접하기 때문에 과제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도 커진다(Frost & Marten, 1990; Stoeber, Otto, Pescheck, Becker, & Stoll, 2007). 따라서 피드백을 받았을 때 부정적인 정보에 초점을 두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편향이 발생되고 이것이 부정적인 정보를 더 잘 기억하는 기억 편향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 결과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기억 때문에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 더 높은 기준을 세우게 되어 과제에 대한 부담이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 생각된다.

완벽주의자에 대한 치료의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자는 우수한 수행을 하고 나서도 스스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만들고, 그렇게 왜곡된 부정적인 정보를 더 잘 기억하게 됨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자아-효능감이 낮아지고, 자아 비판적이게 되며, 일의 효율성도 떨어지게 되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의 여러 문제가 생기게 된다. 또한 얼굴표정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정서 상태를 추측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으로 여기에서 체계적인 왜곡이나 편향이 있다면 이

는 대인관계 상황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이어져서 대인관계에 광범위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이다(Custrini & Feldman, 1989). 따라서 더 적응적이고 행복한 삶과 대인관계 부적응에 대한 예방 및 치료적 개입으로서 자신의 수행을 왜곡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훈련과 얼굴표정을 통하여 타인의 정서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훈련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실패를 경험했다라도 부정적인 정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반성적 반응양식과 같은 적응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하는 훈련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Hewitt와 Flett(1991a)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는 세 가지 하위 차원 간의 상관관계가 높으며, 각 완벽주의 집단에 대한 선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완벽주의 집단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집단만 연구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동시에 높은 집단을 추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방해 과제로 우울과 상태 불안을 측정하는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 설문지의 문항 내용이 피험자의 부적 감정을 유발하여 기억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 연구는 다른 과제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재인 과제 시 휴지시간이 5분이었다. 실험실 상황이기 때문에 휴지시간을 길게 둘 수는 없었으나, 기억 편향을 제대로 측정하기에는 휴지시간이 짧다는 한계가 있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자는 반추를 통해서 시

간이 지날수록 부정 기억 편향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 또한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자는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긍정 얼굴 표정 재인 적중률이 증가할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해서 오히려 부정 얼굴 표정 재인 적중률이 증가할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시간 경과에 따라 기억이 어떤 패턴으로 변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외현 기억을 측정하는 과제만 사용하였지만, 사회불안이나 우울감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기억 편향 연구에서 외현 기억을 측정하는지 내현 기억을 측정하는지에 따라 비일관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Coles & Heimberg, 2002).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내현 기억을 측정 할 수 있는 과제를 사용하여 내현 기억과 외현 기억에 따른 결과를 비교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해석과 기억 편향에 대해 알아보았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정서가가 있는 다양한 얼굴 표정을 사용하여 정서 민감성을 알아보는 방식 등을 이용하여 주의 편향에 대해서도 알아보으로써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피험자 스스로 과제에 대해 지각한 난이도와 중요도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 난이도와 중요도 변인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진관 (1999). 사회불안이 타인평가에 대한 판단 및 기억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진영 (2000). 우울한 기분에 대한 두 가지 내부

초점적 반응양식: 반추적 반응양식 대 반성적 반응양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택 (1978). 특성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순환 (1986). 시험불안, 성공-실패 경험 및 자기지향적 주의가 과제수행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미화 (2001). 완벽주의 성향의 순기능과 역기능: 성취목표,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우울과 관련하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98-113.
최원혜 (1999). 중등학생의 시험 스트레스 상황에서 완벽주의 특성에 따른 시험불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기연 (1994). 다차원적 완벽성: 개념, 측정 및 부적응과의 관련성.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민지 (2010). 성공 및 실패 경험에 따른 긍정적 완벽주의와 부정적 완벽주의 특성.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현진원 (1992). '완벽주의' 성향과 평가수준이 과제수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석인 (2007). 완벽주의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우울반응양식의 효과검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혜영 (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lden, L. E., Bieling, P. J., & Wallace, S. T. (1994). Perfectionism in an interpersonal context: A self-regulation analysis of dysphoria and social anxiety. *Cognitive Therapy and*

- Research*, 18, 297-316.
- Arkin, R. M., & Deutchon, C. S. (1982). Roles of attribution, affect and cognitive interference in test anxiety. *Journal of Personality Social Psychology*, 43, 1111-1124.
- Beck, A. T., Ward, C. H., Mendelson, M., Mock, J., & Erbaugh, J. (1961).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 53-63.
- Burns, D. (1980).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November, 34-52.
- Burns, L. R., & Fedewa, B. A. (2005). Cognitive styles: links with perfectionistic think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 103-113.
- Bower, G. H. (1981). Mood and Memory. *American Psychologist*, 36, 129-148.
- Carver, C. S., & Scheier, M. F. (1981). *Attention and self-regulation: a control-theory approach to human behavior*. New York: Springer.
- Chang, E. D., & Rand, K. L. (2000). Perfectionism as a predictor of subsequent adjustment: Evidence for a specific diathesis-stress mechanism among college stud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129-137.
- Clark, D. M., & Wells, A. (1995). A cognitive model of social phobia. In R. G. Heimberg, M. R. Liebowitz, D. A. Hope, & F. R. Schneier (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pp.69-93).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oles, M. E., & Heimberg, R. G. (2002). Memory biases in the anxiety disorder: current statu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2, 587-627.
- Custrini, R. J., & Feldman, R. S. (1989).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nonverbal encoding and decoding of emotion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336 - 342.
- Egan, S. J., Piek, J. P., Dyck, M. J., & Rees, C. S. (2007). The role of dichotomous thinking and rigidity in perfectionism.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 1813-1822.
- Fedewa, B. A., Burns, L. R., & Gomez, A. A. (2005). Positive and negative perfectionism and the shame/guilt distinction: Adaptive and maladaptive characteristic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 1609-1619.
- Flett, G. L., Hewitt, P. L., Blankstein, K. R., & Mosher, S. W. (1991). Perfectionism, self-actualization, and personal adjustment.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6, 147-160.
- Flett, G. L., Madorsky, D., Hewitt, P. L., & Heisel, M. J. (2002). Perfectionism cognitions, rumin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Rational Emotive and Cognitive Behavior Therapy*, 20, 33-47.
- Frost, R. O., & Marten, P. A. (1990). Perfectionism and evaluative threat.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559-572.
- Frost, R. O., Marten, P., Lahart, C., &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449-468.
- Frost, R. O., Heimberg, R. G., Holt, C. S., Mattia, J. I., & Neubauer, A. L. (1993). A comparison of two measures of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 119-126.
- Gotlib, I. H., & Joormann, J. (2004). Attentional biases for negative interpersonal stimuli in

- clinical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3, 127-135.
- Grzegorek, J. L., Slaney, R. B., Franze, S., & Rice, K. G. (2004). Self-criticism, dependency, self-esteem, and grade point average satisfaction among clusters of perfectionists and nonperfectionis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 192 - 200.
- Hewitt, P. L., & Flett, G. L. (1991a). Dimensions of perfectionism in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98-101.
- Hewitt, P. L., & Flett, G. L. (1991b).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456-470.
- Hewitt, P. L., & Flett, G. L. (1993). Dimensions of perfectionism, daily stress, and depression: A test of the specific vulnerability hypothe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 58-65.
- Hewitt, P. L., Flett, G. L., & Ediger, E. (1996).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longitudinal assessment of a specific vulnerability hypothe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 276-280.
- Mann, M. P. (2004). The adverse influence of narcissistic injury and perfectionism on college students institutional attach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 1797-1806.
- McNally, R. J., Lasko, N. B., Macklin, M. L., & Pitman, R. K. (1995). Autobiographical memory disturbance in combat-relate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3, 619-630.
- Meheravian, A. (1971). *Silent messages*. Belmont, CA: Wadsworth.
- Mor, S., Day, H. I., Flett, G. L., & Hewitt, P. L. (1995). Perfectionism, control, and components of performance anxiety in professional artis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9, 207-225.
- O'Banion, K., & Arkowitz, H. (1977). Social anxiety and selective memory for affective information about the sel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5, 321-328.
- Pacht, A. R. (1984). Reflection on perfection. *American Psychologist*, 39, 386-390.
- Rice, K. G., Bair, C. J., Castro, J. R., Cohen, B. N., & Hood, C. A. (2003). Meanings of Perfectionism: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17, 39-58.
- Rice, K. G., & Slaney, R. B. (2002). Clusters of perfectionists: Two studies of emotional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5, 35-48.
- Rice, K. G., Vergara, D. T., & Aldea, M. A. (2006). Cognitive-affective mediators of perfectionism and college student adjust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 463-473.
- Simon, M. (2008). 그림 그리기를 위한 얼굴 표정 참고서(비즈앤비즈 역.). 서울: 비즈앤비즈. (원저 2005 출판).
- Solomon, L. J., & Rothblum, E. D. (1984). Academic procrastination: Frequency and cognitive-behavioral correla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503-509.
- Sorotzkin, B. (1985). The quest for perfection: Avoiding guilt or avoiding shame? *Psychotherapy*, 22, 564-571.

- Spielberger, C. D., Gorsuch, R. L., & Lushene, R. E.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 Stoeber, J., & Otto, K. (2006). Positive conceptions of perfectionism: Approaches, evidence, challeng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0*, 295-319.
- Stoeber, J., Otto, K., Pescheck, E., Becker, C., & Stoll, O. (2007). Perfectionism and competitive anxiety in athletes: Differentiating striving for perfection and negative reactions to imperfec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 959-969.
- Watkins, P. C., Martin, C. K., & Sten, L. D. (2000). Unconscious memory bias in depression: perceptual and conceptual process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 282-289.
- Weisinger, H., & Lobsenz, N. (1981). *Nobody's Perfect*. New York: Warner Books.
- Yoon, K. L., & Zinbarg, R. E. (2007). Threat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Social anxiety and the interpretation of ambiguous facial express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 839-847.
- 1 차원고접수 : 2011. 9. 8.
수정원고접수 : 2011. 12. 7.
최종게재결정 : 2012. 1. 17.

The effect of perfectionism on facial expression interpretation and memory in evaluation situation

Sang-Hee Kim

Myoung-Ho Hyun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bout the effect of perfectionism of facial expression interpretation and memory according to the situations of success or failure. Groups are divided into three; non-perfectionism group(n=30), self-oriented perfectionism group(n=30) and social-prescribed perfectionism group(n=30). Subjects of each group were randomly assigned to the success or failure treatment conditions. After that, we examined how they interpret ambiguous facial expression after performance feedbacks are given. Also we examined whether there was difference of recognition between positive facial expression and negative facial expression that they interpreted. As a result, in self-oriented perfectionism group, there was no interpretation bias or memory bias found when they got success feedback, and there was only negative interpretation bias found when they got failure feedback in comparison to non-perfectionism group. In social-prescribed perfectionism group, however, there were negative interpretation bias and negative memory bias regardless of success or failure feedback since they tend to distort every feedback in negative way. This result indicated that self-oriented perfectionist and social-prescribed perfectionist's patterns which cause cognitive bias are different. Thus such differences affect perfectionist's adaptation differently.

Key words : perfectionism, facial expression, interpretation bias, memory bias